

〈봉교자술〉의 경험 서사에 나타나는 천주교 인식

윤인선*

— <차 례> —

1. 서론
2. <봉교자술〉에 나타나는 경험의 서술 양상
3. 성당을 매개로 나타나는 <봉교자술〉의 경험 서사
4. <봉교자술〉에 나타나는 경험 서사의 인식적 기반
5. 마치며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후기 천주교 도회장이었던 김기호가 작성한 <봉교자술〉에 관해 연구한다. 특히 <봉교자술〉에 나타나는 경험들이 ‘특정한 글쓰기 양상’을 통해 구성되는 모습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식적 기반’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성당 건설에 관한 서사를 매개로 구성되는 <봉교자술〉의 상권과 하권에서, 서로 다른 글쓰기를 통해 나타나는 경험의 서술 양상에 주목한다. <봉교자술〉의 상권에서는 일화적 글쓰기를 통해 천주교 교리에 대한 공부 경험이, 하권에서는 천주교의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에 대한 성찰적 글쓰기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봉교자술〉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믿음의 체화를 바탕으로 사물의 이치에 대한 공부와 삶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유가적 수양론에 대한 인식적 기반을 바탕으로 서술된다는 점에 관해 설명한다.

이러한 경험 서술 양상은 당시 토착화된 교리서들의 형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동안 천주교 토착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리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를 통해 봉교 경험이 서술되는 맥락에서 조선 후기 천주교의 토착화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대 강사

주제어 <봉교자술>, 김기호, 경험 서사, 천주교 인식, 유교적 수양론, 인식적 기반, 조선 후기 천주교의 토착화.

1. 서론

본고는 김기호의 <봉교자술>에 나타나는 천주교 봉교 경험들이 ‘특정한 글쓰기’ 양상을 통해 구성되는 모습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식적 기반’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천주교 공동체의 지도층이었던 김기호의 봉교 경험 서사가 지닌 문화적 의미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조선 후기 천주교는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계를 받고 온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학문의 형태로 전래되었던 천주교는 서양 문물뿐만 아니라, 기존 조선 사회와는 다른 문화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천주교는 크고 작은 탄압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신자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정병설은 조선 후기 여성 신자 이순이의 옥중 편지를 분석하면서,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와 사상의 세례를 받은 이순이는 이전 한반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이었다.’고 평가했다.¹⁾

당시 천주교의 전래와 공동체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소지주 출신 양반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 대부분은 천주교 공동체의 지도층을 구성하며²⁾ 교리서의 번역 및 저술, 포교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선 후기 천주교의 교리적 기반을 다지고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했다. 또한 이들은 조선 후기 새롭게 유입된 천주교를 나름의 ‘인식적 기반’을 통해 받아드리며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영유해나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봉교(奉敎)³⁾ 경험 서사

1)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182~183쪽.

2)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 지도층의 특성」, 『역사학보』 Vol.105, 역사학회, 1985, 57쪽.

에 주목한다. 경험 서사는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현이 아닌, 기억 메커니즘을 통해 언어적으로 구성된 ‘선택적 재현’이다. 이러한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은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체화된 인지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즉 경험을 서술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경험과 체화된 인지체계의 길항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고, 더 나아가 가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한다.⁴⁾ 따라서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신자들이 봉교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던 모습들과,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천주교에 대한 인식적 기반과 문화적 의미에 관해 살펴볼 수 있다.⁵⁾

이상의 논의를 천주교 회장이자 교리서의 저술가이며, 동시에 다른 회장들을 이끄는 역할인 도회장(都會長)을 맡았던 김기호(金起浩)⁶⁾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회고하며 기록한 <봉교자술(奉敎自述)>⁷⁾을 통해 살펴

3) ‘봉교(奉敎)’란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뒤부터 사용되어 ‘천주교를 봉행하는 일’을 지칭하는 말로 고착되었다. 즉 ‘천주교를 믿고, 지키는 것들을 몸소 받들어 행함’을 의미한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만남과 믿음의 길목에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215쪽.

4) 아네트 시몬스, 『스토리텔링, 대화와 협상의 마이다스』, 김수현 역, 한언, 2001, 68쪽.

5) Enfield, N. J, *Ethnosyntax : explorations in grammar and culture*,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3~24.

6) 김기호(金起浩)의 세례명은 요한이고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황해도 수안 출신으로 15세 때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관직의 길을 버리고 글방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며 각지의 선비들과 교류하였다. 30세 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베르뇌(Berneux, S. F.) 주교로부터 세례 받은 뒤 10여 년간 그의 복사로 있으면서 명도회장(明道會長)·전교회장을 겸하여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며 전교하였다. 병인박해 때 강원도 산골에 숨어 박해를 모면한 후 교회 재건에 헌신하였으며 종현 성당 건립에 관여하였다. 1901년 경기도 하우현(下牛峴)에 은거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1903년 12월에 죽었다. 저서로는 <봉교자술(奉敎自述)>이외에 문답식 교리서인 <소원신종(溯源愼終)>과 <구령요의(求靈要義)> 그리고 <성당가(聖堂歌)>가 있다.

볼 것이다. <봉교지술>은 김기호가 천주교를 믿고 영세 받은 1854년부터 1901년까지 47년간의 삶을 회고하며 작성한 자서전적 경험 서사이다. <봉교지술>은 서(序), 상권, 하권의 구성을 통해 천주교를 믿게 된 계기에서부터 포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담고 있다. 따라서 <봉교지술>은 김기호가 서술하고 있는 봉교 경험 전반과 그것에 담긴 인식적 기반의 문화적 의미에 관해 살펴보기 효과적인 대상이다.

7) <봉교지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국문학뿐만 아니라, 역사학에서도 소수로 이루어졌다. 또한 텍스트에 대한 소개 역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봉교지술> 혹은 김기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운희, 「김기호 연구」, 『한국천주교회창설이백주년 기념: 한국교회사논문집』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민동규, 「조선 후기 도회장 김기호의 활동과 저서 연구: <봉교지술>을 중심으로」,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석사논문, 2010.

원재연, 「구한말 안중근의 천주교 교리인식과 신앙실천: 김기호와 비교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7권, 수원교회사연구소, 2010.

_____, 「김기호의 생애와 활동」, 『한국근현대사와 종교문화』, 호남교회사연구소, 2003.
하성래, 「김기호의 <성당가>고」, 『사목』 제41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5.

이처럼 그동안 <봉교지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김기호라는 인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활용되었다. 하지만 <봉교지술>은 1) 그동안 주로 연구되었던 순교자들의 옥중 수기나 편지보다 넓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 2) 천주교 관련 문헌에서 자서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3) <기해일기>를 비롯한 다른 증언록보다 봉교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 4)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비순교자의 서사라는 점 등에서 충분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

또한 한문 필사본과 한글 필사본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통해 볼 때, 당시 신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봉교지술>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 한문 필사본과 한글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당시 신자들 사이에서 널리 소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글 필사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봉교자술>에 나타나는 경험의 서술 양상

1) <봉교자술>의 서술 의도와 경험 서사의 구성

생애사를 다루고 있는 자서전적 경험 서사들은 단순히 시간 변화에 따른 재현의 의미로서 서술자의 삶이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시간적 진행과 무관한 형식을 활용한다.⁸⁾ <봉교자술> 역시 김기호가 경험한 봉교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본격적인 경험을 서술하기 전에 서(序)를 두어, <봉교자술>을 서술한 계기와 목적을 밝힌다.

이능 다 슈계 길에 들어 텨쥬의 전능안빈 흐시는 은혜로 그 구령의 바름 이 잇스런이와, 소위 구교의 즈순 중 그 헛티 오만흔 자의 사정을 말흐진대. 심히 잇통흔만 흐지라 엇짐이뇨. 그기흔 즐몰나 헛디힘으로 도리 속을 비화 알아 볼 생각도 업고, 오만힘으로 도리를 일직 다 아는체흐는 소견을 고집하야 더욱 방종흐니 이런 사름의 련흔 스정 이 장츄 엇거케 되리오. 생각이 이에 맞츠매 건디기 어려워

김기호는 <봉교자술>의 서(序)를 사람들이 천주교에 들어오게 되는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천주의 전능 안배 하시는 은혜로 그 구령의 바름’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태함’과 ‘오합함’으로 인해 도리를 익히지 않고 방종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천주교를 믿고 구령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다시 승각진대 텨쥬를 공경하야 즈기 령흔 구흐는 도리 어디잇는뇨. 진도

8) 가브리엘 루치우스 회네·아르놀프 데퍼만, 『이야기 분석-서사적 정체성의 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박용익 역, 역락, 2011, 205~208쪽.

즈정 칙의 날너시디 누구던지 구령코재 홀 진대 문져 즈기를 안 후에 텃쥬를 알고 사뵤를 스랑햐야 텃쥬를 스랑햐이라 혼지라 (중략) 이 축을 즈술혼 뜻은 나긔치 혼몽흔 것슨 텃쥬 은혜를 감사햐출도 이지 못햐며, 즈기 죄를 통회햐 출도 이지 못햐며, 쥬께 괴구햐출도 이지 못햐야 즈칙죤을 만이 햐면서 혹 후햐 즈손 쥬 명리햐 자를 기드려 그 증계햐를 삼아 각각 려신 공부햐에 명심햐야 괴햐추션 햐는 실희의 유익햐이 잇슬가햐야 감히 전무햐을 니져버리고 이긔치 말햐노라.

김기호는 서(序)에서 천주교를 믿어 구령하는 바람의 지향이 ‘자기를 안 후에 천주를 알고 사뵤를 사랑햐야 천주를 사랑햐’에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봉교자술>을 서술한다고 밝힌다. <봉교자술>에는 ‘도리 속을 모르고도 헛되어 천당 복을 탐하고 지옥 벌을 무섭다 햐야 들어오는 자도 있으며 우몽한 소견으로 남이 좋다하니 나도 햐야 보겠다 햐야 들어오는 자’⁹⁾와 같이 당시 천주교를 믿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서술되어 있다. 이 중 김기호는 ‘자기와 천주를 알고, 사뵤와 천주를 사랑’하도록 햐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다.

그리고 서(序)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예수 일궈 십궈가를 지시고 갈와랏산으로 가실 때 중노의 씨 모든 교우를 도라보시고 교훈햐는 말슴이 너희는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네 즈손과 만민 죄를 울나햐심이라. 그러나 나긔치 츄고 찬 므음으로는 진짓 쓸디업스니 홀 수 업새, 다만 우리 쥬 예수 성심의 염염햐신 익화를 우러러 뵈웁고 구햐햐노니, 이 념답햐는 므음을 궁년이 념애이 쥬인인햐는 열쟁을 다시 티외주사 각각 즈기 령흔 구햐 공부를 힘쓰게 햐웁소서.

9) 김기호, 『奉教自述』, 1901(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필사본), 1쪽.

김기호는 <봉교자술>에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과 만민 죄를 위해 울라.’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인용을 활용해 천주교를 애주애인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교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에 힘쓰기를 권한다. 이를 통해, 김기호가 <봉교자술>을 서술하는 목적인 자기를 안후에 천주를 알고 사람을 사랑하여야 천주를 사랑하는 행위의 교리적 타당성을 밝힌다.

김기호의 <봉교자술>은 본격적으로 경험을 서술하기 이전에, 서(序)의 형식을 통해 천주교 신앙생활 과정에서 지향하는 ‘봉교 행위의 목적’에 관해 서술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봉교자술>에서 서술될 경험이 ‘자기와 천주를 알고, 사람과 천주를 사랑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 사례(case study)가 될 것이라는, 이후 봉교 경험 서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단순한 시간적 흐름 속에서 체험한 모든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서술 목적을 형상화하기 위해 경험 서사가 내용적으로 선택되어지고 형식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김기호는 <봉교자술>의 서(序) 이후 부분을 입교 이후 자신의 신앙 활동 내용에 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때 상권은 포교 활동을 중심으로, 하권은 신앙생활에 대한 회고 및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학들에 대한 권면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상권]	입교 및 교리 공부 → 전교 활동 중의 고난 경험 → 은둔 생활 → 전교 활동의 재기 → 상해 남경의 성당 시찰 및 종현 성당 건립
[하권]	하우현 성당 건립 → 신심 단체 활동 → 그동안 신앙생활 회고 → 교리서 저술 및 경험을 통한 신앙 고백 → 후학에 대한 권면

이처럼 김기호는 <봉교자술>의 상권과 하권 모두에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몇몇 사건을 선택적으로 서술한다. 이때 상권과 하권 모두

전체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기반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그것에 관한 글쓰기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¹⁰⁾

2) 일화적 글쓰기를 통한 상권의 서술 양상

김기호는 <봉교자술>의 상권을 구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모두 7개의 소제목을 둔다.

소제목	중심 사건
립교 령세훈 특은을 감사함이라.	입교 및 교리 공부에 관한 경험
장주교를 뵈시고 전교하다가 사군난 격근 일을 추억하야 특별하신 유은을 감격하 밋음으로 회파존칭함이라.	전교 활동 중의 고난 경험
주교의 명을 밧드러 락간 도리 칩을 가지고 몇 회간 권화함는 체 함이라.	전교 활동 중의 고난 경험
병인군난 때에 목자 일흔 양이 되어 동서분찬하다가 외인 디방에 서 허송세월하던 일을 기억하야 스스로 탄식하고 스스로 꾸지즈미이라.	은둔 생활 (군난으로 인한 고난)
빅신부 명을 밧드어 평안도 디방에 낭담 교우를 츠자돈이마 생하기를 부즈런이 하느체하나, 턱이 업는듯스 습년 동안에 성스밧게할 수 불과 심여인뿐이라 엇지 붓그럽지 아니하리오.	전교 활동의 제기
빅신부 전라도 계시다가 새울 교우의 스경을 권고하샤 올라오신 후에 복스 거힘할 이 업다하야 스롬을 보내여 브라시기로 김신부께 하직하코 올라와 모시고 지낸던 일을 추억하야 감사함이라.	전교 활동의 제기
빅주교 승품하신후 여덟회 동안 모시고 지낸 일을 기록하야 감은무격하며 회파존송함이라.	상해 남경 성당 시찰 및 중현 성당의 건립

10)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는 사실을 올바르게 재현했는가 아니라, 재현하는 ‘형식 그 자체’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경험을 서술하는가의 차이가 의미, 더 나아가 경험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인식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이든 화이트,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천형균 역, 문학과지성사, 1991, 11~60쪽 참조.

<봉교자술>의 소제목을 살펴보면 ‘회과자책, 탄식하고 꾸짖음이라,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회과자송함이라’와 같은 표현을 통해 김기호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중심 사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봉교자술>의 상권에서는 ‘경험을 중심으로 그것의 결과로서 이르게 되는 심정’을 보여주는 서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봉교자술>은 각각의 소제목에 따라 김기호가 경험한 특정한 행위에 일화적 글쓰기 양상을 보인다.

일화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실존 인물에서 포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연을 언어화한 것이다. 일화는 특별한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한 정점을 반드시 둔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실존한 일물이 보여주는 ‘독특한 인상’을 형성한다.¹¹⁾ <봉교자술>에 나타나는 경험 서사 역시 김기호가 천주교를 믿고 실천하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특별히 기억할만한 사건을 선택하여 서술한다. 이 과정 속에서 ‘회과자책, 탄식하고 꾸짖음이라,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회과자송함이라’와 같이 자신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사건 서술을 통해 봉교에 대한 ‘독특한 인상’을 형상화한다.

이상에 대해 앞서 표를 통해 제시한 경험 서사들을 입교 및 교리 공부 과정, 전교 활동, 성당건립의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다.

먼저 김기호의 입교 경험에 대한 서술 양상에 관해 살펴보겠다.

세속이 날כות바 선비라 세속에 런루함으로 정도명리쟁 중에 노라 족적간 혹 지상이나 명스를 체결하야 헛된 공명도 경영하며 혹 글방을 비치히고 학동을 만히 모와 ㄱ르치니, 이는 그 사소권리를 좇음이라. 이긋치 오유관광 혼지 십여년에 본지 심히 열약한 몸이 속루에 상흔 곳이 만아 그러히지 중병

11)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42~44쪽.

을 엿어 밋우 위험하다가 살아난지라. 호로는 홀연 생각키를 사름이라 호는 거슨 밋오흐나 쥬쟁이라 이왕의 내노라 경영호 바 명리가 내 밋오흐의 무스 관계 잇는고 하야 체결호던 지생명스톨 생종호 밋오흐 업서 (중략) 이러드 시 명리장에 길을 끈고 들러 안더 공부호 생각이 곤절호야 두루 방문호나 세속 칙에는 밋오흐 묘리 계듯게 호 글이 업는지라.

김기호는 본래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세속의 공명에 뜻을 두고 살았으나, 우연히 중병에 걸려 지난 날의 삶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김기호의 입교 경험에서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불만이라는 문제 상황에서 서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속의 다양한 책을 읽지만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다 <성세추요>라는 천주의 도리를 논의한 책을 읽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의심됨을 인호야 서로 인스후에 즉시 그 칙을 들체 내여 잠간보니 텃쥬 도리의론호 글이니, 칙 이흠은 성세추요라. 그 구절마다 밋오흐를 깨쳐 아미 의심업시 령신 즐거움이 비홀디 업는지라.

김기호는 기존 자신이 삶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한다. 특히 속세에서 언지 못하는 ‘마음 묘리를 깨달을 방법’에 관해 고민한다. 그러던 중 ‘천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을 만나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 그리고 이후 ‘아무런 의심없이’ 천주의 도리를 즐겁게 학습한다. 이처럼 <봉교자술>의 입교 경험에서는 삶에 대한 문제적 상황을 ‘천주교에 대한 공부’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천주교 관련 독서, 즉 ‘천주교 관련 공부’가 문제 해결 과정의 중심 사건으로 형상화된다.

다음으로 <봉교자술>의 상권에 나타난 다양한 전교 과정에 대한 서술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봉교자술>의 상권에 나타난 대부분의 전교 과정들은 주로 고난 경험으로 이어진다.

(1) 성교 도리 칙 몇 권과 한문 모르는 이를 위하야 언저 칙 이 삼권을 보즈에 쓴 혼 엇게에 메니, 조금 무리 온지라 좌우 엇게 체번하야 통공함으로 그때 보는 사람이 다 외엇게라 일흠하야 지목하더라 (중략) 학자나 글 잘하나하는 선비를 소문소견디로 츠자가 인스하고 슈죽흔 때면 미양 주인의 심법 다문건을 보아가며 사롭된 본말과 선악상벌을 담론하야 올다하면 서로 추학하논이면 다만 십계와 칙극 조목을 적어 줄뿐이오

(2) 장주교 잡혀 새남터 치명하신 후에 풍파 적이 침식하더니 덕산일 후에 대원군이 흠독하는 므음으로 교우의 씨를 업시고쳐 하야 무죽덩잡아 죽이는 지라 (중략) 주옹이 방목을 보고 미우 희락하여드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기로 글 잘하논 일흠이 멀니 전파하매 내 몸이 도려여 허황겉하야 줌줍이 생각건대 본터 변변치 못흔 글이 봉교 후에 다 니저버려업슨 것이 어덜이러 하시 헛된 문명이 낭즈흠은 혹 령신의 해될가 넘혀하야

<봉교자술> 상권의 전교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군난으로 인해 경험한 고난을 서술한다. 먼저 (1)에서 김기호는 어깨가 쳐져가는 신체적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공부한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 다양한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교한다. 이때 김기호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학행이 박식한 선비들과 천주교의 논리에 대해 문답한다. 그리고 책을 통해 천주교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설파한다.

또한 (2)에서 김기호는 당시 일어났던 다양한 군난으로 인해 ‘헛된 문명’으로 표현된 봉교 이전의 공부를 가르쳐야하고, 이로 인해 천주교의 교리를 포교하지 못하는 상황을 ‘영신에 해가될까 두려워’한다. 즉 김기호는 봉교 과정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설법하여 믿게 하지 못하는, 혹

은 스스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그리고 각각의 일화들은 이러한 상황을 수도자나 천주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한다.¹²⁾

이처럼 <봉교자술>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가르칠 수 없는 모습이나, 자신이 더 이상 천주교의 교리를 공부할 수 없는 모습을 중심으로 전교 과정에 관한 경험 서사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김기호가 봉교 과정에서 지니고 있던 천주교 공부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기호가 전교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에 대한 공부’가 핵심적인 사건으로 형상화된다.

끝으로 <봉교자술> 상권에 나타난 상해 남경의 성당 시찰 및 종현 성당 건립에 관한 경험을 살펴보겠다. 이때 <봉교자술>에서는 김기호가 주교들과 함께 청나라와 일본의 성당을 방문하게 되고, 이후 성당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조선의 천주교를 제도화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또 십년동안에 종현성당 비치를 경영하야 처음에 혼집식 촛초 사서 칩 판
 흐는 처쇼도 비치하며, 슈너잇술 집도 마련하야, 주교 게실 집도 세운 후에
 성당 터를 닥그려하야 정부 대신들이 조당을 만히하느니라

백주교는 청나라와 일본의 성당을 방문한 후, 본격적으로 조선 신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천주교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봉교자술>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영아원, 양로원, 인애회’를 창설하는 과정을 통해 서술한다.¹³⁾ 그리고 비록 많은 정부 대신들의 조당으로 인해 성당 건립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김기호는 천주교

12) 이는 <봉교자술> 속에서 주교의 등장으로 천주교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포교하게 되어 더 많이 믿게 되거나, 주교의 부르심을 통해 외교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3) 김기호, 앞의 책, 27쪽.

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백주교의 모습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봉교자술>을 서술한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수행했던 천주교 관련 번역 및 저술 작업의 경험을 함께 서술한다. 김기호는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천주교의 제도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수행한 성서를 번역하고 천주교의 ‘성교 도리책’을 저술하게 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주교 또 모든 교우들 가르치기 위하여 만고만은 성서를 다 번역하기가 제일 원이라. 그러므로 나긋치 우몽흔 것술 불어 가르쳐 가며 번역 식이시는교로 (중략) 덩신부 호로는 나를 불려하시는 말슴이 성교도리책 하나 공부해야 문들라 하시리로 엇즈오디 엇디하시는 분부오잇가. 감왈 그을이면 시골 전교회장들이 올라오짓시니 그 사롬들 도무지 도리 모든다 엇더케 전교히짓느냐 내 말이 죄인이 그 사롬들 알게 할 수 잇는잇가 삼활 오나 나와 혼가지로 의론해야 힘써보자 하시고 칙 문들 죠회를 주시는지라 (중략) 혼들 동안에 큰 칙 하나 다 된지라

김기호는 신부들이 성당을 건립하고 조선 천주교의 제도화 과정의 일환으로 성서의 번역과 성교 도리책의 저술과 같은 일을 맡게 된다. 이 과정을 <봉교자술>에서는 ‘제일 원하던 뜻’으로 여겨 ‘한달이라는’ 시간 동안 책을 완성할 정도로 열심히 또 기쁘게 수행하는 모습으로 서술한다. <봉교자술>은 먼저 주교와 함께 수행한 성당 건립을 비롯한 천주교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후 자신의 천주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한 번역 및 저서 작업 경험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김기호는 천주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번역 및 저서 작업에 관한 경험을 서술한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김기호가 봉교 과정에서 천주교 교리 공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열심이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천주교를 믿고 따르는, 즉 봉교하는 방법에는 교리 공부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순교나 고문 속에서 배교하지 않고 천주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나¹⁴⁾ 이웃을 위한 선행을¹⁵⁾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다. 하지만 김기호는 <봉교자술>의 상권에서 천주교 공부의 중요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경험을 서술한다. 이러한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봉교 과정에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천주교 공부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여준다. 이는 <봉교자술>의 서(序)를 통해 제시한 ‘자기와 천주를 알고, 사람과 천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에 대한 일화적 글쓰기를 통해 풀어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천주교 공부에 관련된 경험의 서술’을 통해 보여준다.

- 14) 몇몇 순교자들의 경험 서사를 살펴보면, 관군이 습격했을 당시 도망가지 않고 의연하게 붙잡혀 천주를 증명하는 방식, 더 나아가 스스로 찾아가 붙잡힘 당하고 자신이 ‘성교인’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한다.

“그해 이월에 군난이 대궐하야 친이하던 교우들이 만히 잡히매, 그때 봉천 리 막다리나와 혼집에 잇던지라 여섯사람이 혼가지로 상의하고 혼가지로 조흔홀사 너, 문져 잡혀 간 교우의 집에 포졸이 잇다함을 듣고 초초가니 포졸이 괴이히 녀여 여러히 온 열유를 못거늘 성교인이라 설명하니” <그희일기> 中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은 봉교를 수행한다. 하지만 김기호는 ‘그 후 경향의 포졸들이 가끔 습격하고 교우들을 잡아갔다. 나는 유독 용모가 남달리 눈에 띄기 쉬우므로 낮에는 산골짜기를 찾아 숨었다.’라는 <봉교자술> 상권의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과는 다른 방식의 봉교를 실천한다. 반대로 김기호의 봉교 경험에서 두드러지게 형상화되는 천주교 공부에 대한 경험은 많은 순교자들의 서사에서는 한 두 줄로 짧게 처리되거나 찾아보기 어렵다.

- 15) 몇몇 신자들의 경험 서사에서는 비록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지만,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을 신장하기도 한다.

“피 가타리나는 역원의 손녀라 인품이 총명강직하고 어려서부터 그 모친의 교훈을 밧아며 각 경문을 비하 슈계하니 (중략) 바느질 품 폴므로 여러 사람의 시명을 보호하여 주며 또 만흔 영희들을 밤낮으로 구원하며 화평하야 웃는듯한 얼굴 빗치 일성에 혼갓갓더라.” <丙寅致命者傳> 中

위 인용은 <丙寅致命者傳>에 나온 피 카타리나의 경험 서사이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느질 품을 팔아 이웃을 도우며 성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3) 성찰적 글쓰기를 통한 하권의 서술 양상

<봉교자술>의 하권은 상권과 마찬가지로 소재목을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상권과 같이 경험을 일화로서 서술하지 않는다. <봉교자술>의 하권에서는 ‘턴주의 안비호신 은혜로 이 디방에 성당을 설치호야 신부 영접함을 감축홈이라.’ 1개의 편에서만 구체적인 시공간을 지닌 사건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봉교자술>의 하권은 천주교 관련 사건이나 교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권의 소재목 역시 앞서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성의 지표를 제시한다.

- 봉교 후 스오십년 동안에 수계호노라 하나 항호는바 모든 신공이 때를 따라 허호고 실홈도 있고 유익무익홈도 잇스니 스스로 붓그리고 스스로 탄식 홈을 마지아니 호노라
- 일성일스는 세상 스름의 떼뻗힌 일이어늘 나는 이 세상에 나서 당흔 본분을 따르가며 다 잘못 호였시니 호번 죽은 후 일이 엇더케 될고 호야 일변원통호고 일변환구홈이라.
- 신망의 삼덕은 즈기 덕흔 구호는 본덕이오 구령호는 본길은 죄를 끈음 이오 죄를 끈는 본법은 각 사름이 즈기 모병과 습관된 것술 알아 곳침이 나라.
- 옛 성인 성녀들의 예수 성체의 성심 공경호는 규조중에 내 믿음과 흡합호는 몇 조목을 곁의며 덕호야 내 날마다 신덕호는 규조를 삼아 실패잇는 듯호기로 대강 기록호야 믿음과 뜻이 갖흔 후학도호호여곰 시험호여 유익홈이 잇슬가 홈이로다.

위 인용은 <봉교자술>의 하권에 나타나는 소재목의 일부이다.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특정한 시공간을 지닌 사건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한번 죽은 후 일이 어떻게 될고 하여 일변원통하

고 일변 황구함이라.’ ‘유익하고 무익함도 있으니 스스로 부끄럽고 스스로 탄식함을 마지아니 하노라.’와 같은 자신의 심정이나, ‘죄를 끊는 본 법은 각 사람이 자기 모병과 습관된 것을 알아 고침이니라.’와 같은 앞으로 행위에 대한 당위가 나타난다. 이처럼 <봉교지술>의 하권에서 김기호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서술된다.

이를 위해 <봉교지술>의 하권에서는 먼저 삶을 성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양상을 보인다.

(3) 무릇 사람이 세상에 나매 턴쥬 명헌신 본분을 직히여 부모된 이는 부모의 본분, 자녀 된이는 자녀의 본분, 님군된 이는 님군의 존분(중략) 이 본분디로 아니흐면 뉘가 사람이라 흐리오. 우리 교우 된 이도 각각 성교 본분을 직히여야 가회 구령자라 흘거시어늘 (4) 나 궂치 우몽흔 거슨 봉교 처음부터 당흔 본분을 따라가며 성실치 못흔거시 만흔줄을 생각켜 대강 기록흐노니 (중략) (5) 수년 후에 쥬교 명으로 서복 각 디방에 전교흐는 체히여 시니 그때는 전교회장이니 불형이 병인풍파를 당히야 명도회 일흠도 민멸흐고 전교흐던 일도 성실치 못흔지라

위 인용은 <봉교지술> 하권에 나타난 성찰적 글쓰기의 양상이다. 김기호는 경험을 서술하기 위해 먼저 (3)과 같은 천주교의 교리를 비롯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은 천주께 받은 것이므로 천주의 직분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후 (4)에 나타나는 ‘봉교 처음부터 당한 본분을 따라가며 성실치 못한 것이 많은 줄을 생각해 대강 기록하노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서술의 목적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끝으로 (5)에서와 같이 앞서 제시한 기준과 목적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삶을 성찰한다.¹⁶⁾

<봉교지술>의 하권에서는 천주교 신자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

경험을 활용한다. 이러한 구성은 <봉교자술>의 서(序)를 통해 제시한 ‘자기와 천주를 알고, 사람과 천주를 사랑하는 것’을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봉교자술>의 상권을 통해 김기호가 봉교에서 천주교 공부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지식은 단지 김기호의 지적 유희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식의 공부를 통해 자신이 입교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희망하였다.¹⁷⁾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봉교자술>을 작성하면서 ‘자기와 천주를 알고, 사람과 천주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는 모습을 서술한다. 이를 통해 봉교 과정에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천주교 지식을 활용한 삶의 성찰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여준다.

16) 이러한 성찰적 글쓰기의 형식은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턴쥬 | 사뭇처럼 죄를 짓고 통회 덩기호야 착훈바 | 아니시라. 본디 털뭇만흔 하자 | 업샤썬 쥬전이 착훈샤 만션이 전비호시니 그 선히심이 엇디하시노 (중략) 나난 지 악지렐 호니 이러호신 텃쥬를 맞당이 흠슌홀 거시오.”

위 인용은 최해두가 쓴 <즈칙 - 스슬쭈지>의 일부이다. 이 글은 배교자였던 최해두가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쓴 일종의 참회록이다. 이때에도 먼저 천주교의 존재를 설명하는 교리를 비롯한 성찰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자신의 삶을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구성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을 조선 후기 천주교 성찰적 글쓰기, 즉 단순한 회고가 아닌 신앙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보편적 형식의 하나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최해두, 『즈칙 - 스슬쭈지』(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필사본).

17) 이는 서(序)에서 천주교를 ‘해태하고 방만하여’하여 ‘도리의 오묘함’과 ‘도리의 참 뜻’을 익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성당을 매개로 나타나는 <봉교자술>의 경험 서사

<봉교자술>에 나타난 경험 서사는 일화적 글쓰기를 통해 상권이,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하권이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김기호가 생각하는 봉교의 의미인 ‘자기와 천주를 알고, 사람과 천주를 사랑하는 것’을 천주교에 대한 ‘공부’와 그것을 통한 삶의 ‘성찰’로 형상화한다. 이것이 바로 김기호가 봉교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위인 것이다.

<봉교자술>의 상권과 하권에서 서로 다른 글쓰기 양상으로 경험을 서술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나타난다. 비록 종현과 하우현이라는 지역은 다를지라도 ‘성당 건설’에 관한 경험이다. 즉 <봉교자술>의 상권에서는 일화적 글쓰기의 마지막을 상해 남경의 성당 시찰 및 종현 성당 건립에 관한 경험으로, 하권에서는 하우현 성당 건립에 관한 경험을 통해 성찰적 글쓰기를 시작한다.

‘성당 건설’을 매개로 나타나는 상권과 하권의 서사 구성은 단순히 ‘담론의 자의성’ 혹은 ‘서술자의 우연’이라고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경험 서사가 서술 의도에 따라 경험을 선택하고 구성한 것이라고 할 때, 서술자는 이러한 구성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봉교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려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성당 경험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당시 성당에 대한 경험은 연행사들의 북경 천주당 방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개 벽 위에 십자로 된 나무판자를 붙이고 사람의 머리 위와 사지에 모두 쇠못을 박아 내걸어, 마치 거열하는 형상과 같은데 완전히 고결한 풍채의 사람이었다. 피부와 살, 손톱과 머리카락이 꼭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온몸이 나체였으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쇠못

자리에 붉은 선혈이 쏟아져 뚝뚝 떨어지는데, 그 얼을 보니 방금 죽어 식지도 않은 것 같아 현기증이 나도록 참혹하여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다.¹⁸⁾

<赴燕日記> 1828년 6월 25일 기사

당시 성당을 방문한 연행사들은 공통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예수상의 모습을 ‘현기증이 나도록 참혹하다’고 표현하며 충격적으로 그린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형벌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듣고, <부연일기>를 작성한 이재흡은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는 자들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이때 성당은 단순히 미사를 보는 곳이 아니었다. 십자가가 주는 강렬한 충격을 바탕으로 하는 내부 구성은 그 안에서 봉헌되는 종교적 제의를 통해 참여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천주교에 대한 믿음을 체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¹⁹⁾

김기호 역시 백주교와 함께한 청나라 성당 방문에서 이러한 점을 깨닫는다.

훈곳은 성서, 성생, 성물 등 만든 사람들이오. 훈곳은 열층 망풍더 놓히 구름 스이에 꽃친 것이오. 훈 곳은 슈납 슈녀와 밋기를 ㄱ르치는 영희 글 닉는 소리더라. 이 성당에서 첨양흐때 텃쥬의 만물을 성육호시는 괴상과 예수의 만세를 교양호시는 진인물 감히 알더라.

18) 蓋壁上付十字木板，人之頭上及四肢，竝下釘揭之，若車裂之狀，完全是玉骨人，皮肉爪髮，十分如生，通身赤裸，真假未分。而自頭至足釘處，迎血紅鮮淋漓，而看其面目，若方未冷矣，眼猜神慘，殆難正視。

19) 이는 마치 미셸 푸코가 훈육이 현대 사회에 스며드는 방식에 관한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병원, 감옥, 대학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하고, 각각의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훈육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개인들이 특정 공간을 통해 내화되는 의미, 통제의 유형에 관해 설명한다.

사라 밀스,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역, 엘피, 2012, 90쪽.

위 인용은 <봉교지술> 상권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김기호는 청나라 성당을 방문한 경험에 관해 서술한다. 그리고 이 경험을 ‘이 성당에서 첨앙해 천주의 만물을 생육하시는 기상과 예수의 만세를 교양하시는 진의를 감히 알 수 있었다.’고 표현한다. 김기호는 성당을 단순히 미사를 전개하는 곳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그는 <봉교지술>에 나타난 삼덕당의 행사를 통해 ‘장주교에 대한 추앙의 정’을 느끼고, 성당에 배치된 성상과 성물 그리고 수도 생활 및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의 참사랑을 느끼며’, 이를 통해 천주교에 대한 믿음을 체화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²⁰⁾ <봉교지술>에 나타난 성당 역시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을 것이다.

<봉교지술>의 상권에서 김기호는 자신이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경험을 서술한다. 이후에서 성당 건설에 관한 서사가 배치된다. 성당 건설 이후 서술되는 천주교 공부를 위한 성서의 번역이나, 저술, 설법 과정에서는 어려움보다는 ‘만일 해석하기 못할 곳이 있으면 김 요한에게 물어 밝히어 분별한 후’ 혹은 ‘천주님께서 내 마음의 수고를 갚아주시기 위해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다.’와 같이 천주교 공부의 가치를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난다.²¹⁾ 다시 말해, <봉교지술>의 상권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공부의 과정과 그로 인한 고난을 서술한다. 하지만 성당 건설에 관한 경험을 매개로 김기호가 인식한 봉교 행위인 천주교에 대한 공부의 가치가 인정받고 실현되어 나타난다. 또한 <봉교지술>의 하권에서 김기호는 본격적인 성찰적 글쓰기 이전에 성당 건설에 관한 서사를 배치한다. 이를 통해 성당에 관한 서사의 매개를 시작으로 김기호가 인식한 봉교 행위인 천주교 지식을 활용한 삶에 대한 성찰이 서술된다. 즉 성당 건설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체화와 관련된 경험을 이후 천주교

20) 김기호, 앞의 책, 24쪽.

21) 위의 책, 31쪽.

지식을 활용한 삶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김기호가 가치 있는 봉교로 인식한 행위들이 성당에 관한 서사를 매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서사 전개	성당에 관한 서사	→	상권	천주교에 대한 공부를 인정받음
			하권	천주교 지식을 통한 삶의 성찰
의미의 배치	천주교 믿음의 체화	→	김기호가 인식한 봉교 행위의 실현	

<봉교자술>의 서사 구성은 김기호가 인식한 봉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당으로 상징되는 천주교에 대한 믿음의 체화가 전제/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당을 매개로 <봉교자술>의 경험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형상화한다. 다시 말해, <봉교자술>에서는 경험 서사의 구성 양상을 통해 천주교에 대한 믿음의 체화를 매개로, 공부와 성찰을 통한 실현된 봉교 행위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4. <봉교자술>에 나타나는 경험 서사의 인식적 기반

김기호에게 ‘자기와 천주를 알고, 사람과 천주를 사랑하는’ 가치 있는 봉교 행위는 조선 후기 새롭게 전래된 천주교에 대한 믿음의 체화를 바탕으로, 그것의 이치에 대한 공부와 지식을 활용한 삶의 성찰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봉교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사건을 선택하여 경험을 서술하게 하는 인식적 기반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봉교자술>에 나타나는 천주교 이치에 대한 공부와 지식을 활용한 삶

의 성찰은 김기호가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힘쓰는 과정에서 체화된 유교적 수양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 갓흔 죄인이 본디 잠영 후예로 시골 태생 농가에 나서부터 농스에는
 막음이 업고 부형의 교훈을 받드러 글즈을 비화 나이 십오륙에 니르매 능히
 과문을 통하야 시부간땡땡 모양하기로 세속이 날긋는바 선비라 세속에 련루
 흠으로 정도명리쟁 중에 노라 족척간 혹 지상이나 명스를 체결하야 헛된 공
 명도경영하며 혹 글방을 받치하고 학동을 만하 모와 그르치니 이는 그 사소
 권리를 춤춤이라

이처럼 베풀하는 집안의 후예로서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힘쓴 김기호에게 유교적 수양론은 이미 삶에서 체화된 인식체계였을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전래된 천주교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서사를 구성할 때, 김기호에게 체화된 유교적 수양론은 경험을 서술하는 인식적 기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²²⁾ 이러한 모습은 유교적 수양론의 논리와 서술된 경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유학에서는 사물의 이치와 본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수양론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거경함양(居敬涵養)을 강조한다. 이때 격물치지만 '사물의 이치를 따져 보는 공부'로서 '도덕적 질서에 대한 주지주의적 접근'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조선 유학에서는 도덕적 수양론을 위해 독서와 토론 즉 강학(講學)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강조한다.²³⁾

이러한 모습은 김기호의 붕교 경험 서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붕교지술>의 상권에서 스스로 천주교 교리를 학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22) Mark Turner, *The Literary Min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V.

23) 한국사상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350~351, 355~360쪽 참조

게 그것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토론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대강 말할 거시니 들어보라 우리 사람이 었던 이를 의론치 말고 다 턴쥬 대군부겨 성품과 성명을 빗아 난주를 아느냐, 답 아노라. 내 말이 그러면 여러 양반이 다 아시는 바 공명의 7ㄹ친 말씀에도 선을 하는 자면 턴쥬 복으로서 갑을 주시고 악을 하는 자면 턴쥬 화양으로서 갑호신다했었고 또 예로부터 전하야 오는 말이 착흔 사람은 도흔 곳으로 도라가고 몯쓸 놈은 몯쓸 곳으로 간다했었시니 이도 다 밋어 아느냐, 혼 즉 모든 이 다 줌즘이 머리물 숙하는 모양하고 노숙흔 선비 하나히디, 답하디 그러나 뉘가 도흔 곳과 언즈는 곳을 눈으로 보왔느냐

위 인용은 <봉교자술> 상권의 일부이다. 김기호가 다양한 독서를 통해 생명의 기원, 선과 악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이치와 같은 천주교의 교리를 공부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처럼 김기호는 천주교에 대한 믿음의 체화를 바탕으로, 세계관, 이치 등에 대해 스스로 따져 물어 깨우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천주교를 공부한다.

또한 조선시대 유학의 도덕적 수양론에서는 마음이 발동한 이발(已發)의 단계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성하여 살펴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함양성찰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좌 공부와 소학 공부를 통해 함양된 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펴 잡념의 침투를 경계해야한다.²⁴⁾

이는 <봉교자술>의 하권에 나타난 성찰적 글쓰기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위의 책, 325~326쪽 참조.

영혼은 예수의 영혼과 결합하여 아모 죄도 다 업서지고 내 믿음은 예수의 성심과 체결하여 조찰하고 내 몸은 예수의 주성인성과 합하여 나의 결혼바르 길고 나의 과실을 속쳐 새롭게 흠이라 나는 본디 지극히 비천하여 적은 티끌이요, 적은 베레갯흔거시 죄만짓는 종이여 나를 마치 충생한 영혼의 어진 벗과 갖치 믿음을 허락하시며 몸을 아시며 선으로 칙하시는지라

김기호는 다양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천주교의 이치에 대해 공부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 영혼은 예수의 영혼과 결합하여 아무 죄도 다 없어지고’와 같은 지식을 획득한다. 이때 김기호는 자신이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는 본디 지극히 비천하여 작은 티끌이요, 작은 벌레 같은 것이니’와 같이 서술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마음에 천주교 이치에서 벗어나는 ‘잡념의 침투’를 경계한다.

이처럼 김기호는 천주교에 대한 믿음의 체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한 천주교의 지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마음을 바로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봉교자술>에 나타난 경험 서사는 천주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유교적 수양론이라는 인식적 기반과의 길항 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교와 천주교의 친연성을 바탕으로 교리서를 저술하던 다른 지도층 신자들의 서사들과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정하상의 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임금도 업신여긴다고 말하니 이는 성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가 부모님을 효도로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무른 ‘충’과 ‘효’라고 하는 두 글자는 만대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도리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그 육신을 봉양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더더욱 열심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합니다.²⁵⁾

- 정하상 <上梓相書> 中

위 인용은 정하상의 <상재상서>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정하상은 ‘충과 효’에 대해 십계명을 통해 설명하면서 현재 조선이 천주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에 관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천주교의 교리가 유교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호소한다. 이는 당시 천주교 지도층 신자들이 작성한 교리에 관한 다른 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당시 지도층 신자들은 천주교가 기존 조선 사회체계의 기반인 유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교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천주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는 결국 ‘기존 유교를 인식적 기반으로 삼아 천주교를 이해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이처럼 공부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수양론의 맥락에서²⁷⁾ 김기호는 자신의 봉교 경험을 서술한다. 이는 ‘천주교라는 새로운 문화체계를 유교적 수양론에 관한 인식적 기반’을 통해 이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봉교자술>은 공부와 성찰을 강조하는 유교적 수양론의 인식적 기반을 통해 천주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내용적, 형식적으로 선택·구성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25) 十誠之第四, 孝敬父母夫, 忠孝二字, 萬代不易之道也. 養志, 養體, 人子之當然, 而奉教之心, 尤功謹慎.

26) 이러한 모습은 유교적 수양론을 통해 천주교/서학을 이해하려는 성호 이익에게서 시작되어 나타난다. 그는 <칠곡>에 대한 비평을 통해 심서에 대한 논의는 유가의 극기 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천당과 지옥에 대한 논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금장태, 『星湖 李瀼의 西學인식』, 『동이문화』 Vol.38, 서울대학교 동이문화연구소, 2000. 이광호, 『성호 이익의 서학 수용의 경학적 기초』, 『한국실학연구』 Vol.7, 한국실학학회, 2004.

27) 정학섭, 『유가사상 공부론과 수양론의 탐색』, 『사회사상과 문화』 Vol.21, 동양사회사상학회, 2010, 232~233쪽.

5. 마치며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봉교지술>의 경험 서사에서 나타나는 김기호의 천주교 인식에 관해 살펴보았다. 김기호는 천주교 이치에 대한 공부와 지식을 통한 자기 성찰 과정을 봉교 경험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김기호가 천주교를 믿고 따르는 봉교의 의미를 유가적 수양론에 대한 인식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이후 동아시아 천주교 전래 과정에서 유교와 천주교의 친연성을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신앙의 토착화’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천주교의 토착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리의 내용 구성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천주교에 대한 동일한 문화적 기반(ground)을 공유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교리 이외에도 다양한 담론에서 이러한 토착화 양상이 나름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본고의 논의는 봉교 경험 서사의 구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의 논의는 경험 서사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재현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험을 서술하는 것은 과거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술자의 체화된 삶의 인식체계와 사건의 길항작용을 통해 서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 서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실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서술자, 더 나아가 사회의 인식적 기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호, 『奉敎自述』, 1901(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필사본).
- 임기중 편, 『연행록 전집』 85,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최해두, 『즈칙 - 스슬꾸지』(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필사본).
- 현석문, 『기해일기』, 하성래 역, 성황석두루가서원, 1985.
- 금장태, 『星湖 李瀼의 西學인식』, 『동아문화』 Vol38,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00, 1~38쪽.
- 김운희, 『김기호 연구』, 『한국천주교회창설이백주년 기념: 한국교회사논문집』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941~986쪽.
- 민동규, 『조선 후기 도회장 김기호의 활동과 저서 연구: <봉교자술>을 중심으로』,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석사논문, 2010.
- 원재연, 『구한말 안중근의 천주교 교리인식과 신앙실천: 김기호와 비교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7권, 수원교회사연구소, 2010, 119~158쪽.
- _____, 『김기호의 생애와 활동』, 『한국근현대사와 종교문화』, 호남교회사연구소, 2003, 183~230쪽.
-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1~412쪽.
- 이광호, 『성호 이익의 서학 수용의 경학적 기초』, 『한국실학연구』 Vol.7, 한국실학학회, 2004, 89~119쪽.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5, 1~458쪽.
-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1~250쪽.
- 정학섭, 『유가사상 공부론과 수양론의 탐색』, 『사회사상과 문화』 Vol.21, 동양사회사상학회, 2010, 231~260쪽.
- 조 광, 『조선후기 천주교 지도층의 특성』, 『역사학보』 Vol.105, 역사학회, 1985, 35~66쪽.
- 하성래, 『김기호의 <성당가>고』, 『사목』 제41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5, 118~123쪽.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만남과 믿음의 길목에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1~380쪽.
- 한국사상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1~646쪽.

- 가브리엘 루치우스 회네·아르놀프 데퍼만, 『이야기 분석 - 서사적 정체성의 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박용익 역, 역락, 2011, 1~510쪽.
- 사라 밀스,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역, 엘피, 2012, 1~268쪽.
- 아네트 시몬스, 『스토리텔링, 대화와 협상의 마이다스』, 김수현 역, 한언, 2001, 1~328쪽.
- 헤이든 화이트,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천형균 역, 문학과지성사, 1991, 1~564쪽.
- Mark Turner, *The Literary Min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208.
- Enfield, N. J, *Ethnosyntax : explorations in grammar and cultur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1~336.

ABSTRACT

A Study about Cognition of Catholic
on Experience Narrative of *Bongkyojasul*

Yoon, In-sun

This thesis studies about *Bongkyojasul*(奉教自述) written by Kim ki-ho who is leadership of Catholic in the late Chosun dynasty. Especially focused on 'constructed aspect though particular narrative structure' and its 'cognitive ground'.

For this, this thesis argues about difference writing aspect of experience narrative in *Bongkyojasul* which is mediated by narrative about construction of Catholic church. The first volume of *Bongkyojasul* narrates study experience about Catholic using anecdotic writing. The second volume of *Bongkyojasul* shows reflective writing on experience using Catholic doctrine. And then this thesis explains that experience narrative in *Bongkyojasul* has cognitive ground of Confucian cultivation.

This aspect is same structure on naturalized Catechism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is thesis suggest new possibility of discourse about naturalization of Catholic, using not only doctrine but also experience narrative.

Key Words *Bongkyojasul*, Kim Ki-ho, Experience narrative, Catholic cognition, Confucian cultivation, Cognitive ground, Naturalization of Catholic in the late Chosun dynasty

논문투고일 : 2015. 10. 29

심사완료일 : 2015. 12. 2

게재확정일 : 2015. 12. 8